

지역성의 표징: 건축과 장소성의 특징

Signs of Regionality: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and Place

진 정 / 전북대 건축과 교수
by Jin Jeong

과거와 미래

어느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건축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 우리는 우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 고유의 물리적인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물의 외적인 형태나 형식상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배후에는 그 지역의 역사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형식이나 형태 그 자체만을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건축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정서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방송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통하여 다음 사실의 확인을 희망했다. 그는 최근 IMF시대를 맞이하여 조립식건축이 전주시에 범람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도시의 경관을 손상하고 있으니 고도로서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건축적으로 적절한 의견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기자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과거와 연관된 고도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의 모습은 건축물의 규제나 유인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전주를 방문했을 때 거리에서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예향 전주’

‘월드컵은 천년고도 전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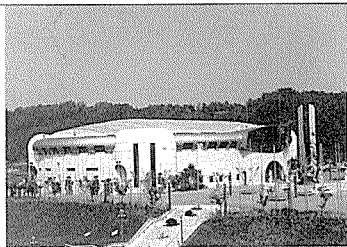
‘천년고도 문화관광 영상도시 전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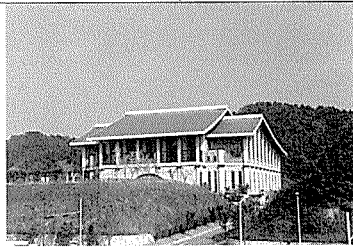
‘현대적 스포츠와 첨단 영상산업이 천년의 역

사나 전통과 공존하는 모습되고 대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주의 지역적 건축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전주지역의 건축은 한편에서는 전통과 과거에 대하여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이고 발전적인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건축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하여 건설된 두 개의 빙상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일부지속에 건설된 두 개의 빙상경기장은 그 건축적 표현에 있어 아주 대조적이다. 하나는 미래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차가운 금속성의 이미지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건물은 거대한 기와 지붕의 이미지와 전통적인 목조건물의 형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은 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건축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건물의 현상설계시 요구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능의 충족과 함께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각종 설계심의에서도 거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며 건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이는 막연하나마 모두가 전통적인 어떤 건축적 형식을 표현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통이나 역사 그리고 과거와 같은 요소에 강하게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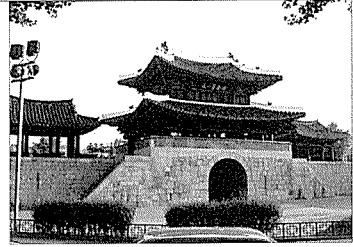
전라감영자리에 세워진 도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옛 감영을 복원하자는 여론이나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도청사 신축설계 당선안이나 지역문화 예술의 부흥을



제1빙상 경기장



제2빙상 경기장



풍남문

위해서 건립되는 전북문화예술회관 등은 건축적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 최근의 서구적 건축조류를 반영한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어찌보면 극히 모순되는 듯한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역적 정서이며 현실이다. 이는 건축물의 질적수준이나 우열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견해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

우리가 지역과 관련하여 건축을 생각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물리적, 추상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며 이는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에 귀결된다. 전주지역에서 전통양식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공되고 모방되는 건축물은 풍남문, 객사, 경기전, 향교 등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대개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며 역사적 유물로서 그리고 고건축물로서 건축학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전주라는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의 내용은 이러한 몇 개의 건축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건축물들이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요인들은 도시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건축물들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시기적으로 대부분 길게 보아 개화기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60년대 70년대 근대화 초창기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보존지구의 주택들도 대부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고도 전주의 도시적 특징이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특징은 구체적으로 천 년전에 존재했던 도시가 아닌 현재의 도시인 것이다.

평야의 농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과 그 삶속에 서구 근대산업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농촌도시의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분위기와 건축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도시모습인 것이며, 6,70년대에 나타난 다른 근대적 산업도시나 인위적으로 급조된 계획 도시에 대립되는 분위기와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연관되어 나

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지역성을 건축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건축의 복사물이나 유사한 형태적 표현을 갖는 건축물들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나 도시에 자리잡은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지역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유리되어 산업도시의 외형적 모습이나 서구적 근대건축의 단순한 모방만을 추구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적 요소와 함께 장소의 측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지어져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그 당시 성안의 공간구성방식에 따라 그 기능과 중요도가 결정되고 일정한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켜 배치된 것이며 그 중 일부가 남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지역적 성격이나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 더 중요한 요소들은 이러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전동, 풍남동 등의 주거지 모습과 성문밖 시장과 관련된 남부시장이나 중앙동의 상가거리, 전주천변의 풍경, 그리고 주변으로 이어지는 농촌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각 장소에 남아있는 중요 건축물이란 이러한 도시적 모습을 보강하고 중요한 도시내 시각적 대상임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건물이 지역성과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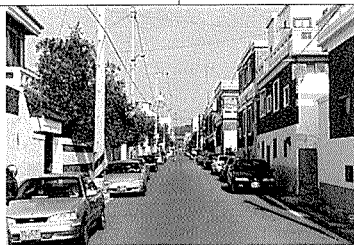
지역성과 건축적 표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 건축물을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주제는 과거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나 과거에 대한 건축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구상적 표현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대상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추상적 방법으로 대상이나 주제 등을 은유적인 간접방식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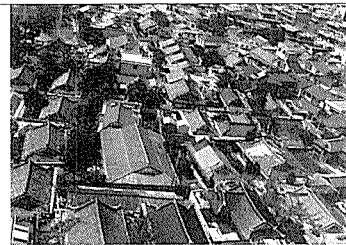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구상적인 직설적 방법에 접근하고 있다. 전주시청사, 전주역, 종합경기장, 제2빙상경기장,



객사



기존 주택지



한옥지구

전주박물관 등 대표적인 공공의 성격을 갖는 주요건물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건축적 접근을 시도한 결과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건축적 표현이나 접근방식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반시민이나 건축사 그리고 행정 당국 등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건축적 표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때에 따라서는 지나칠 정도로 이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접근법을 지역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물론 한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반복된 유사한 형태의 사용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일감이나 일체감이란 오히려 획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박제화된 역사적 양식의 단순한 모방이나 복제에 가깝다면 이는 더욱더 부정적인 지역적 건축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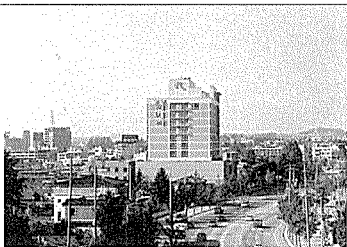
우리는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기념물이나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모든 건축물이 동일한 건축적 접근방법이나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장소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성격이나 전통적인 건축적 특징이 강조되는 전주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이나 장소적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성과 장소성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전주지역의 현실적 모습은 풍남문, 경기전, 전주향교, 객사 등 고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이다. 이는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건축적 요구와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역사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이나 인구증가에 따르는 도시규모의 확대와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 등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작고 조용한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구현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별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좀더 작은 구역으로서의 지역성과 장소적 성격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전체가 일체화된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성과 장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건물에 대한 접근방법보다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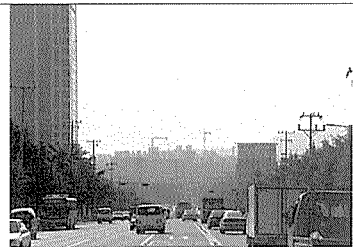
전주의 건축적 특성으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옥보존지구의 경우 그 동안 개별건축물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통하여 그 특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는 이러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고층빌딩이나 오피스빌딩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보존지구의 기와지붕은 실제로 그 대부분이 한옥기와의가 아닌 왜식 기와지붕 또는 변형된 현대의 유사기와의지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이는 윤곽으로서의 기와지붕군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전주의 고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옥보존지구 내부의 가로에서 느끼는 분위기나 개별주택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하늘에서 보아왔던 전통적인 한옥지구의 통일되고 차분한 주거지역의 모습은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질적인 소형상가 또는 대규모인 현대주택들이 시대적 변화와 자체의 필요 및 요구에 대응하여 유사기와의지붕으로 위장한 채 우리가 추구하는 한옥군의 모습과는 다른 이도 저도 아닌 절충된 어정쩡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옥보존구역에 인접하여 건축된 리베라호텔은 서울 비원 옆에 건립된 현대사옥에서 야기된 것과 동일한 논쟁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옥지구와 면한 뒤편 일층 가로부는 조경적 처리와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한옥지구의 분위기를 전통적 형태의 차용이 아닌 보행환경의 조성이라는 도시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한옥보존지구 그 자체로 보더라도 긍정적이다. 이는 비록 고층의 현대적 건물이 한옥지구와 대비되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지상부에 자리잡고 있으나 가로변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옥지구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형태나 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지역적 특성이나 통일성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베라 호텔



구시가지 도로



신시가지 도로

독립된 하나의 건물 혹은 고립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그 기념적인 성격을 강조함에 따라 전통적인 형식의 차용을 통하여 지역성의 표현이나 장소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들이 밀집하여 가로로 도시적 성격이 강조되는 도심부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형식적인 조건의 만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도시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전주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도시의 지형적 조건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성곽도시로서 전주성의 외부는 기린봉, 다가산, 태극산, 향방산, 가련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성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산들이 마치 시골마을에서의 경관처럼 주택들 사이에 보이게 된다. 이는 도시가로망이 정비되고 건물들의 규모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가로가 중요한 경관의 통로로 변화된 현재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내부의 어느 지점에서건 도로 끝의 경관은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산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조선시대 성곽도시의 내부도로 끝에 나타나는 성문의 존재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가로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개별건물이 갖는 장소성만이 아닌 도시전체에 대하여 장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로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이며 가능성이이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과 개발에 따라 새로 형성된 가로에서는 도로의 폭이 기존 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에서 강조되던 도시와 주변경관이 산을 통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전주 특유의 경관을 느낄 수 없다.

산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장소적 성격이다. 원래 전주에는 전주천, 삼천천과 같은 본류하천외에 도심부 또는 주거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많은 하천의 지류가 있었으며 이는 전주의 도시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구역마다 강한 장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하천의 지류는 마치 서울의 청계천이 그러하듯 모두 복개되어 그 흔적이나 위치조차 찾을 길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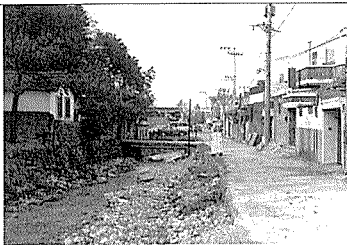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건축적 대응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압력은 건축 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지에 자리잡고 있던 학교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대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나 현대적인 호텔이 건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지역적 특성이나 도시분위기는 파괴된다. 80년대 90년대의 도시개발사업과 이 결과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이란 전통이나 고도의 모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선진사회의 도시나 건축의 외형적 모습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건축과 도시는 지금까지 언급한 전주지역의 지역성문제와는 무관한 또 다른 전주의 모습으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과 건축적 특성을 보여준다. 최근에 개발된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그리고 삼천·효자지구 등은 지역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현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화된 건축 도시적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장소적 의미를 전제로 하는 접근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건축적 양식이나 형태적 특성의 모방이나 절충이 아닌 또 다른 접근의 가능성으로 장소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고나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이 서울과 다르고, 구미나 창원과 다른 전주라는 지역적 의미의 확인을 통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예향의, 천년고도의, 전통적인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그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 존재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유산이라 할 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나 분위기가 그대로 박제화되어 보존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변화와 발전도 모든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며 건축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시내 하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복개 하천



해성고 이전부지의 동국아파트